

SW공급망보안 가이드라인 1.0 해설

가이드라인 요약



집필참여

- 국가정보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플랫폼 정부 위원회
- 한국인터넷진흥원, 국내 정보보호 학계, SW공급망보안 포럼 등

발표취지

- SW 공급망에 침투하여 악성코드 삽입 등 SW 공급망 공격에 대한 우려 고조
- 기업의 의사 결정자 및 실무자들이 SW 공급망 보안 개념 쉽게 이해하고 활용 지원

핵심내용

- SW 공급망 위기 대응의 필요성, SW 공급망 위험 관리 방안
- 국내 SBOM 보안 실증 사업, 국가적 차원의 SW 공급망 보안 활성화 지원

기대효과

- 북한 등 고도화된 해킹 조직에 의한 기업의 SW 공급망 위협 완화
- SW 전체 라이프 사이클에서 SBOM 중심의 보안 관리체계 확산

핵심 내용

1장. 추진배경

- 초연결 사회가 도래되면서 SW 공급의 분업화로 책임이 복잡해지고, 제품 및 서비스 무결성에 대한 신뢰 하락
- 공급망 공격은 보안 취약점 및 악성코드를 악용한 것, 피해 광범위하고 지속적 특징
- 미국, 유럽 등은 SW 공급망 공격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SBOM 도입 등 제도화
- 우리나라도 SW공급망 공격 대응 및 효과적인 보안 취약점 관리 방안으로 **SBOM 기반 SW 공급망 보안 체계 마련이 필요함**

2장. SW공급망 위험관리 방안

- 공급망 전체에서 사이버보안 위험을 관리하고 적절한 대응 정책 및 전략등을 개발하기 위한 체계적 프로세스(C-SCRM) 대두
- C-SCRM은 개발-구매-운영 및 유지보수 등 '**SW 생명주기**' 전체에 걸쳐 다양한 이해관계자 그룹이 함께 참여해야 함
- SW 공급망 참여자들은 SBOM을 통해서 보안 취약점, 공개 SW 라이선스 관리 기능
- SBOM은 SW를 개발하거나, 구매할 때 또는 시스템 운영에도 활용할 수 있음

SW 공급망 보안 가이드라인 v1.0

요약본

- [개발사 보안활동] SW 개발 생명주기 전반 걸친 위험 관리를 위해 SBOM 생성을 위한 필수 설비를 구축/활용→ 공개SW 및 상용 도구 활용하여 NVD 연계
- [공급사 보안활동] 타사 SW의 검증, 실행 파일 테스트를 통해 안전한 SW의 전달 및 신규 취약점 알림을 전파하고 취약점 대응 조치
- [운영사 보안활동] SW 제품의 구매 및 업그레이드시 제품과 구성요소의 무결성 검증, 인수한 제품과 SBOM 비교/ 확인 등 보안 활동 수행
- [SBOM 실증 결과] 소스코드, 바이너리, 의존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SBOM을 관리하여야 하며, 2개 이상의 도구를 이용한 교차 검증이 필요

- [테스트베드 지원] 중소기업이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SBOM기반 SW 공급망 보안 관리체계 구현 : 디지털헬스 케어 보안 리빙랩(원주), 판교 공급망보안 테스트베드 등
- [NIS-SBOM] 정부/공공기관에 도입되는 SW 공급망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가정보원에서 NIS-SBOM 제정 : 기본 항목 최소화, 보안취약점 연동, 위험관리 효율화
- [발전 제언] ①SW 공급망 보안 체계 구축을 위한 적극적 투자 필요 ②기관 내 IT자산과 SW를 관리하고 보안 취약점을 지속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관리체계 필요 ③ 안전한 SW 개발 환경 조성 위한 법적, 기술적 프레임워크 필요 ④ SBOM을 기밀성 보장 및 안전한 공유를 위한 기술 연구 필요

3장-1. SBOM기반 SW 공급망 보안 강화 방안

3장-2. SBOM기반 SW 공급망 보안 강화 방안

Highlight & More

SW공급망 보안은 국가 사이버안보를 위한 핵심 의제

- SW공급망 보안을 위해 국가의 사이버보안 관련 기관인 과기부 정통부 및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국내 사이버 보안 가이드라인 관련 최초 공동 집필 참여
- 제로트러스트 가이드라인 1.0(2023. 06) 공표(과기부)와 더불어 사이버보안의 현대화를 위한 보안 정책 관련 현 정부 두번째 가이드라인

“정부·공공기관의 정책결정자 및 기업의 경영진 등이 본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SW 공급망 공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SW 공급망 보안에 대한 투자를 기획하고 실행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

SBOM기반의 SW공급망 보안위협 대응

- SBOM은 SW 위험 관리를 위한 기초 데이터가 됨
- 개발사·공급사·운영사 등 SW 생명주기에 있는 모든 주체에게 SBOM 기반의 SW 공급망 보안 활동 필요성 제기
- 특히 SW개발 생명주기에서의 보안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
- NIS-SBOM의 제정 및 공표

“정부 디지털 플랫폼 사업 및 국가 핵심 기간망 사업 등의 추진시 SW 무결성 검증을 위한 SBOM의 제시 요청과 활용 적극화 될 것”

“SW Life Cycle, SBOM 사용주체, SW유형 등에 따른 **SBOM도구의 선택기준과 활용방안** 등이 시장에서 세분화 될 것”

아쉬운 점과 추후 발전방향

- 공개SW(오픈소스 SW)의 취약점 식별과 대응이 SW공급망 보안 강화의 전부인 것처럼 오해의 소지 있음
- 야생에서 발생하는 실제 SW 공급망 공격의 TTPs 연구에 기반하여 추가의 대응 기법 및 기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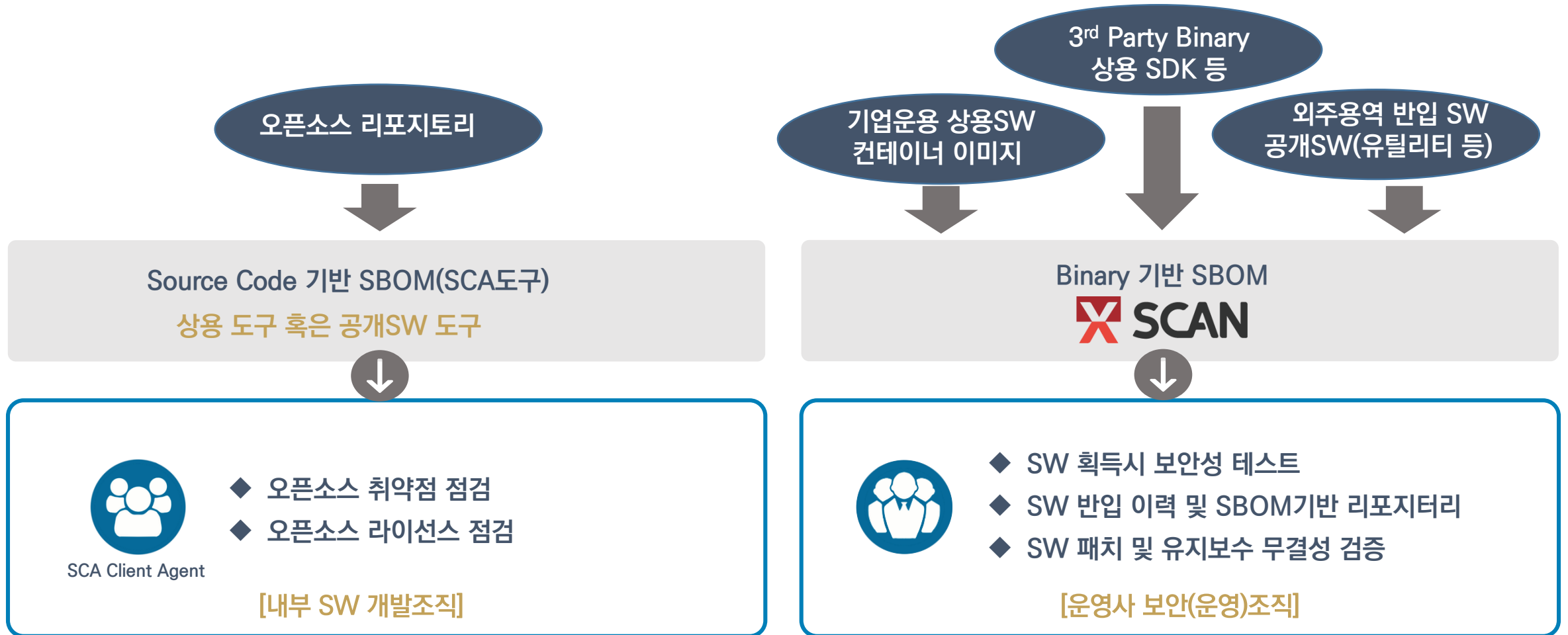
“가이드라인 v1.0 이후 지속적인 성숙 기대”

“SW공급망 보안 강화를 위한 제도화 및 세부적인 정부지원 방안 등이 논의 및 마련 될 것”

SBOM 기준 가이드라인의 준수

운영자(고객사)입장의 SW공급망 보안 가이드라인v1.0을 준수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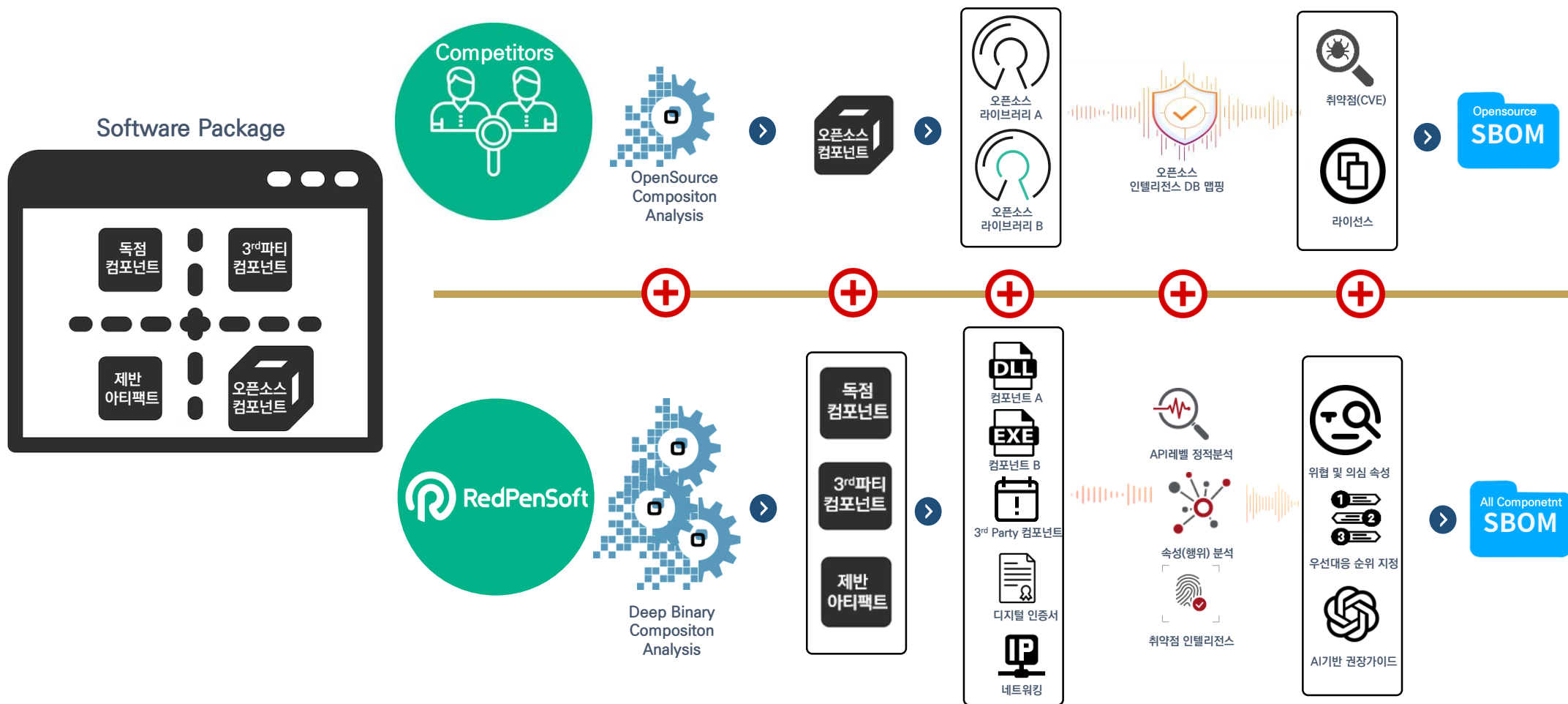
내부 SW개발팀을 가지고 있는 경우와,보안 운영 조직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다릅니다.



XSCAN 차별점 01

공격자의 관점(전술·기술·프로세스)에서 대응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오픈소스 분석은 공급망 공격 대응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엑스스캔은 소프트웨어를 폭파 수준에 이르기까지 완전 분해했습니다.



XSCAN 차별점 02

야생의 실제 공격은 특정 컴포넌트의 바꿔치기를 주 공격기법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엑스스캔은 이전 버전 대비 변화되는 패치의 형상 관리가 그 해답임을 찾았습니다



XSCAN 차별점 03

너무나 많은 오픈소스 취약점이 탐지되어 난감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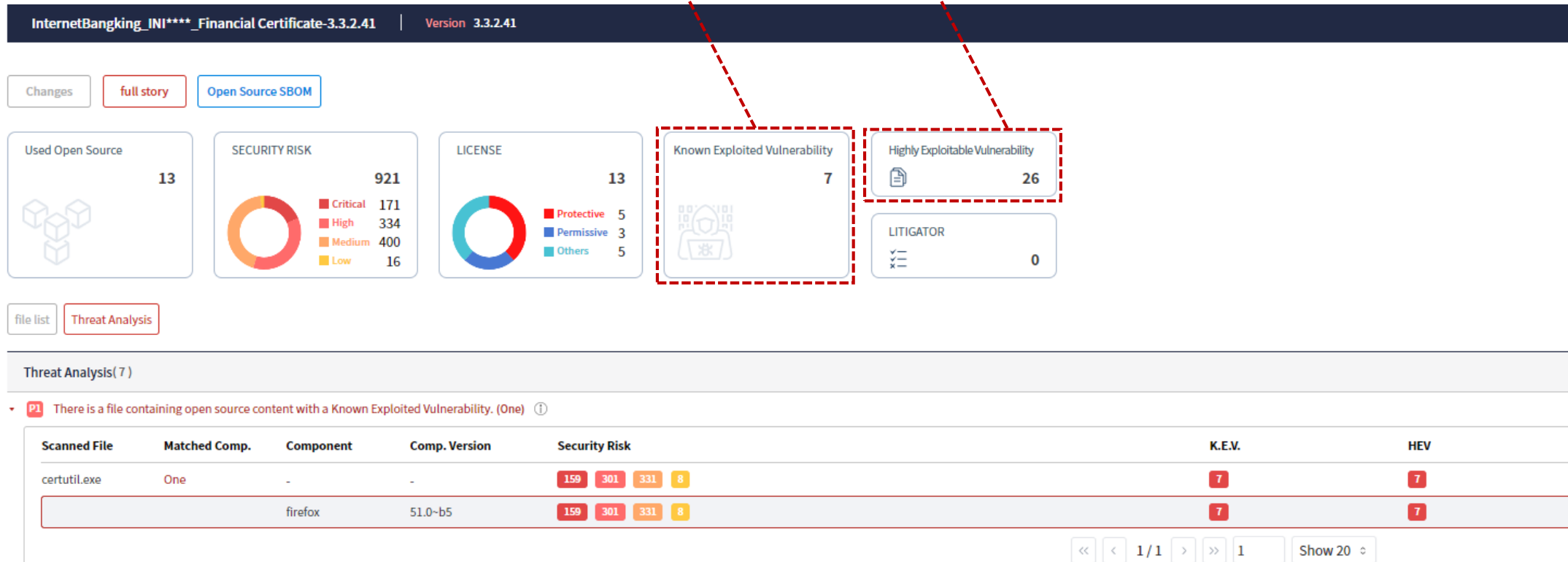
엑스스캔은 우선 해결해야 할 취약점에 집중할 수 있도록 Pinpoint합니다

KEV

- Known Exploited Vulnerability로 미국의 CISA에서 관리하는 Must Patch CVE List
- 이러한 취약점을 가진 SW는 내부로 반입하면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

HEV

- Highly Exploitable Vulnerability로 FIRST(국제사이버사고대응포럼)의 EPSS 맵핑
- 30일 이내 익스플로잇 될 가능성이 70% 이상인 취약점



XSCAN Business Area

모두가 왼쪽(Shift Left)만을 이야기할때...

우리는 오른쪽(Shift Right)을 바라보았습니다.

SW가 침해될 수 있다는 제로트러스트 관점에서, 수요자가 SW의 무결성을 검증해야 합니다.



공급자 관점의 공급망 보안 대응
SAST/DAST/SCA Tools etc



수요자 관점의 공급망 보안 대응



SW벤더의 개발자가
오픈소스 분석도구 등을
개발 단말 및 SaaS환경에서
SW개발 라이프 사이클시에
안전하고 고품질의SW개발을 위해서
소스코드 기반 자동화된 분석 기법

5W
1H

- 기업의 보안 담당자가
- 레드펜소프트의 엑스스캔을
- 클라우드 SaaS 환경에서
- SW의 획득 및 패치 유지보수시에
- SW공급망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 바이너리 기반 자동화된 분석 기법

Thanks